

아픈이들 고통 치유의 교량역할...

수상 스님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장 · 반야사 주지)



수상 스님은 ... 1984년 용담 성광사로 출가해 1985년 보림사 금강계단서 유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 한 이후, 1990년 조계종 봉선사 금강계단서 무진장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1993년 범어사 금강계단서 일타 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2004년 봉원사 금강계단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 4월 제주바라밀호스피스를 창립하고, 9월에는 제주도 병원내 최초로 제주의료원에 불교법당을 개원했다. 이어 2009년 6월에는 제주대학병원에도 불교법당을 개원했다. 스님은 불교 장례의 정착화를 위해 임종환자를 위한 시다림기도와 입관 기도 등 한글화된 불교의식으로 진행중이며, 불교장례문화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지난 2011년 4월 제39회 보건의 날을 맞아 제주도지사 표창패를 수여했고, 국제라이온스협회 제주지구와 제주 MBC가 주관한 제6회 제주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병환의 고통으로 생과 사의 막다른 길목에 있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길목이 바로 병원이다. 그래서 늘 멀리하고 싶고, 솔직히 말해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심신이 나약해진 환자들에게 힘이 돼주고자 병원을 찾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제주바라밀호스피스 회원들이다. 그 중심에는 회장인 수상 스님(제주 반야사 주지)이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주대 병원에서 환자들의 패를 발원하는 자비의 연꽃등을 나눠주었다. "부처님께서 아픈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공덕이 가장 숭고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연꽃에 새겨 병마로 고통받는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에게 연꽃등을 건네는 것조차 머뭇거리던 바라밀호스피스 회원들이 이제는 환자를 가족같이 스스럼없이 대할 정도로 거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상 스님이 특히 빠짐없이 들리는 곳은 바로 암병동이다. 기자가 함께 동행한 6월 2일도 40대의 젊은 환자가 생사의 고비에서 힘겨워 하고 있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환자의 엄장소멸 기도를 했다. 환자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일심으로 기도 했다. 환자도 두 눈을 꼭 감고 함께 발원했다. 기도의 율력이 나타난 것일까. 환자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그려진다. 이제는 모든 업을 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부인과 어린 아이들은 그 미소를 보며 한없이 오열하며 눈물을 흘렸다.

수상 스님은 "꿈같은 우리의 삶,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 할 길이기 전에 먼저 가시는 길, 부처님 품안에서 편안하시고 업의 그림자에 유혹되지 마시고 자비광명의 빛을 의지해 정토에서 왕생하길 바랍니다"며 축원을 올렸다. 회원들도 스님의 뒤에서 함께 간절한 엄장소멸의 기도를 올렸다.

수상 스님은 "누구나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지요.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생로병사를 보며 출가를 결심 하셨듯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평상시 건강한 몸으로 살 때는 이 건강의 소중함과 생로병사에 대해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기에 살아가는 동안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즉 어떻게 삶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잘 회향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라고 웰다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호스피스 활동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제주에 수상 스님이 원력을 펼치기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지만 호스피스라는 단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민들에게 낯선 단어였다. 그렇다면 수상 스님이 호스피스를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자신도 아파봐야 남의 아픈 심정을 안다고 저 역시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19세 때 간 절제 수술을 받고 병마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보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스님은 요양차 들어간 산사에서 부처님의 법(法)이 너

무 좋아 이듬해 출가를 했다. 병과 출가, 어찌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인데 수상 스님의 인생에 큰 획을 긋는 운명적 만남이 됐다.

그리고 수상 스님은 결심했다. 아픈이들을 위해 법을 전하며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삼겠다고 말이다. 이후 3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수상 스님은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마다 않고 간병과 임종기도를 묵묵히 해왔다. 수상 스님과 호스피스와의 첫 인연은 이랬다. 스님이 서울 충정사에 있을 때 신도중 암환자가 있어 병문안 차 우연히 병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타종교 성직자와 신자들이 환자에게 쏟는 정성과 간절히 기도해 주는 모습을 목격하고 불교 수행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

"그 때 육체의 병은 의사에게 맡기더라도 환자가 겪는 마음의 괴로움 만큼은 종교인들이 어루만지고 위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 확신했지요. 이후 호스피스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또

사회복지·호스피스에 원력 세우

2005년 제주 바라밀호스피스회 창립
매주 목요일마다 회원들과 환자찾아 기도
카페 '바라밀 실천도량' 개설 온라인 활동

바라밀법당 불사에 힘쓰다

바라밀 실천도량 '반야원' 2007년 개원
제주의료원에 병원법당 최초 개원
제주도지사 표창 및 봉사상 등 다수 수상

한 선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살면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후천적 장애도 주변에 많음을 알게 되면서 장애인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저에게 호스피스는 수행입니다. 생로병사를 몸소 부딪히며 깨닫는 과정입니다. 우리 불교도 이제 더 이상 혼자만 알고 닦는 불교가 아니라 저 깊숙한 곳에서 무한대의 자비심을 끄집어내 밖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를 정성으로 간병하는 동안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수상 스님은 불교호스피스를 단순한 봉사가 아닌 수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불자들은 흔히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 말하지만 그 무량한 자비심을 끊임없이 일구어 쓰는 데는 서툰 것이 또한 불자들이라고 스님은 아쉬워했다.

불교가 아직도 다른 종교에 비해 호스피스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스님의 지적은 진지한 참회와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불

교 포교라는 1차원적인 문제에 앞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깨달음의 수행이고,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실천의 방편이라고 호스피스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런 강한 원력때문인지 스님은 중앙승가대서 불교학을 공부한 뒤 다시 한성대 대학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등한 이사장과의 인연으로 2003년 고향인 제주에 내려온 스님은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복지관 내 춘강정사를 개원했다. 제주에서 장애인에 물론 부처님의 자비 손길이 가장 필요한 병원과 복지관 등에서 간병 및 임종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부처님 법으로 보듬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펼친 수상 스님은 제주도내 불교호스피스 모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10년 전 도내 불자들과 뜻을 모아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를 출범하게 된다.

지난 2005년 4월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모임인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3층서 창립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그 결과 그해 10월 노인전문병원인 제주의료원에 병원법당을 도내 최초로 개원하는 결실을 맺는다.

수상 스님은 "제주의료원에 천주교와 개신교 예배공간은 있었지만 불교실은 종교실 내 한 구석에 방치돼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를 병원측에 건의해 여법한 법당으로 고쳐서 개원하게 됐습니다. 비록 7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그 어디에 놓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여법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법당은 불교호스피스의 메카로 제주불교 사회복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수상 스님과 바라밀호스피스 회원들은 매달 교계 복지시설인 제주양로원과 제주요양원, 제주대학교원 등의 복지시설과 제주의료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등 도내 의료기관서 간병기도와 임종기도, 환자 말벗 봉사 등의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다음카페 바라밀실천도량(http://cafe.daum.net/susangbaramil)을 개설해 온라인 상에서도 호스피스 정보를 교환하고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있다.

이외에도 수상 스님은 좀 더 체계적인 호스피스 활동 전개를 위한 일을 또하나 세운다. 바로 부처님 품안에서 보다 편안하게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바로 '불교 호스피스 쉼터'이다. 이미 천주교와 개신교의 경우 호스피스 전문 병원과 호스피스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원력을 모아 지난 2007년 7월 호스피스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한 제주지역 불교호스피스 구심점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바라밀실천도량 반야원'을 제주시 아라동에 개원한다. 반야원 법당 불사는 병실과 노인복지시설을 찾아가 환자의 심적 안정을 심어주는 기도 봉사 형태의 기존 호스피스 활동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호스피스를 펼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후 반야원은 세월을 신임리 '반야사'로 이전했으며, 2010년 8월부터는 불교호스피스 쉼터인 '상락원'을 준공해 그 원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에 또 하나의 경사 생겼다. 제주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지리산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60팩**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

“호스피스 활동이 곧 수행”



수상 스님은 매주 목요일마다 환자를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준다.



2005년 4월 바라밀 호스피스회 창립법회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수상 스님.



수상 스님이 2012년 11월 김녕중학교에서 템플라이프 강의를 하고있다.



수상 스님은 2013년 5월 웰다잉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도 최대 규모 병원인 제주대학병원이 아라동으로 확장 이전을 하면서 병원 지하에 불교법당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병동에서는 몸의 병을, 법당서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됐다. 불자 환자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제주대학병원 법당이 호스피스 활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해 나갔다. 특히 제주바라밀호스피스 회원들은 제주대학병원 내 제주지역암센터서 실시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했고, 절반 이상은 심화과정까지 수료할 정도로 이제는 전문성도 갖췄다. 회원들 중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10여명이 넘었고, 미술원에치료 전문가, 국악인 등이 포진해 있어, 다양한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펼치는 원동력이 돼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6월에는 제주도로부터 의료분야 전문봉사단 인증까지 받았다. 각 개개인의 능력으로 시작한 호스피스 활동이 이제는 명실공히 공인 기관들의 검증까지 받게 된 것이다.

아직도 호스피스에 부족함이 많다는 수상 스님은 “호스피스는 봉사자 아닌 부처님을 닮아 가는 길이자 깨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제주지역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펼친 지 10여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같은 고통의 과정들이 오히려 큰 결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교 호스피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게 시급히 해결 할 과제지요. 기도 역시 자신이 체험했을 때 참된 가피를 알게 되듯 호스피스 활동도 동참을 통해 스스로 체화될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호스피스는 수상 스님’이라는 인

식이 도내 불자는 물론 도민들에게까지 각인됐다. 그동안 피와 맑은 공적으로 이어졌다. 수상 스님은 지난 2011년 4월 제39회 보건의 날을 맞아 제주도지사 표창패를 수상하는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 제주지구와 제주 MBC가 주관한 제6회 제주사회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안았다. 수상 스님은 “개인의 영광 보다는 불모지고 도외시됐던 불교호스피스 활동이 불교계 뿐 아니라 도내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상 스님은 또한 지난 제주사회봉사상 수상금 300만원과 더불어 지난 2014년 1월 태고종 제주교구 신도회가 주관한 제 5회 불자봉사대상서 단체부문 수상 금액 100만원 전액까지 총 4백만원의 어려운 환자들에게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대부분 병원비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을 안 스님이 상금 이외에도 개인 돈까지 보시한 것이다. 수상 스님은 “자비 정신으로 생과 사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이 밖에 도 스님은 매년 병원비를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

수상 스님의 봉사행은 호스피스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입식 교육에 찌든 청소년들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김녕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나선데 이어, 반야사서 매년 2회에 걸쳐 ‘청소년들의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 템플라이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상처받은 청소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고 있다. 여기에 수상 스님은 호스피스서 한발 더 나

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이들이 죽는 그날까지 열정적인 후회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길을 제시한다. 바로 웰다잉 교육이다. 수상 스님은 지난 2013년 5월 제주 교계 최초로 웰다잉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총 15회 강좌를 통해 배출된 웰다잉 지도자만 20명. 강좌를 수료한 이들은 사찰이나 불교계 시설에 전문 인력으로 파견돼 웰다잉에 대한 인식 확산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폐암 투병 중인 한 교육생은 교육을 이수하며 유언장을 쓰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후회없는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기도 했다. 이어 수상 스님은 반야사서 이듬해 7월 두 번째 웰다잉 강좌를 마련했고, 올해는 사전 의뢰의향서 실천모임 지원사업자로 선정돼 제주불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원력을 펼치고 있다.

이제 수상 스님이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를 창립한지 올해로 10년째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제 2전시실에서 지난 10년의 흔적을 사진으로 구성해 도내 사부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아직도 이뤄나가지 할 게 많다는 수상 스님은 마지막으로 재가불자들에게 그 권리를 찾을 것을 당부한다. “불자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그 권리로 재적사찰 주지 스님에게 간병과 임종기도가 필요할 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를 통해 병원 포교에 대한 스님들의 시야가 넓어지면 간병과 임종기도 등 호스피스 활동도 불교계에 점차 확산 될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 · 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전법일기 문화포교는 7전 8기 정신으로

지난 6월 2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인쇄문화의 꽃-고판화특별전’이 열린 것이다. 이 특별전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의 유물 100여 점을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일반시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한 기회였다. 문화부가 K-pop과 같이 박물관 문화를 한류문화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K-Museums사업의 일환으로 K-Museums사업은 전국의 공·사립박물관 중 매년 1곳을 선정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를 열고 동시에 낙후된 전시실 리모델링도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며 많은 감회가 북받쳐 올랐다. 최근에는 문화사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고판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격려와 후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다.

천년고찰로 사찰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때 ‘더욱 고칠 점은 고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고판화를 이용한 콘텐츠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갔으며 기존의 체험프로그램도 더욱 열심히 진행했다.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판화를 주제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이면에는 법당에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는 기본적인 포교 바탕 위에 불교와는 관계없는 것 같은 다양한 분야를 통해 전법활동도 전문적인 영역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이윽고 2011년에 들어서 템플스테이 운영사업에 선정됐다는 희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국내에서 문화포교를 전개하기에



그림 · 박구원

이날 고판화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한 명주사 노보살들은 스님이 목판을 수집해 절로 가져왔을 때 ‘왜, 목판을 모으냐’며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조각도를 들고 목판화를 새기는 것을 일종의 사경수행처럼 하고 있다. 목판화 판각이 정신택중력에 좋으며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판각을 권하고 있다. 외부에서 보면 전시전이 쉽게 생사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도 4번의 도전 끝에 이뤄졌다. 대부분의 불교계가 이러한 공모사업에 있어 정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두번의 시도도 좌절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점은 공모 탈락에도 주저않고, 문제를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명주사가 고판화를 주제로 템플스테이 사찰에 선정됐을 때의 일화다. 당시 명주사는 고판화박물관과 연계해 뮤지엄스테이와 판화학교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템플스테이 사찰 선정에서는 연거푸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명주사가 고찰이 아닌 신생사찰인 점이 문제라고 생각됐다. ‘선정에서 안타깝게 빠졌다’는 말만 들기를 세 번째, ‘포기할까’는 생각도 들

눅룩한 상황은 아니다. 불교계의 많은 문화시설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문제에 처해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들과 불자들의 상황에서 문화적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문화계 전반에서 불교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처음 고판화박물관의 시도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때 꾸준한 활동으로 지금의 위치에 왔듯이 불교계도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7월 3일부터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일본 고판화의 세계 특별전’ 초청전시회를 비롯해 9월 민속박물관 지원 특별전, 10월 동경에서 열리는 ‘고판화박물관 명품전’ 등 5개의 전시전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아시아 유물소장박물관인 기메미술관 초청 전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전해오려한다.

한신학 고판화박물관 관장(명주사 주지)

불자님들의 오늘 운세는?

백팔번뇌 운수카드 + 복주머니 ISET 3만원

TIP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갑골문자(甲骨文)는 신석기 시대 점괘(占卦)를 기록한 점서로 한자의 모체가 되어 변(邊)과 획(劃)에 신통력이 있다. 바로 격암유록이나 정암록비결은 파자(破字)의 신통력으로 국운을 예지(豫知)한 예언서이다. 나라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인생항로에는 길흉화복이 있으니 천부(天賦)의 계시로 신통력이 있는 백팔번뇌 파자비결(破字秘訣)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구름처럼 사라진다. ■ 계좌번호 : 우체국 011965-02-11277 (예금주 : 한영필)

죄(罪) (39) (허물 죄) 망하유미(網下有非)하니 관재구설(官災口舌)이다. (해설) 허물 죄(罪)자는 그물 망(網) 밑에 아니 비(罪)자가 있다. (운세) 장문 권 허물(罪)이 법망(法網)에 걸리면 죄(罪)가 되니 관재(官災) 또는 구설(口舌)이 생긴다.	명(名) (22) (이름 명) 석양호명(夕陽呼名)함은 자녀심려(子女心慮)이다. (해설) 이름 명(名)자는 저녁 석(夕) 아래에 입구(口)자가 있다. (운세) 석양(夕陽)에 자녀(子女)를 찾아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사람은 자도 이름을 남겨라.	수(愁) (11) (근심 수) 심상유수(心上有愁)하니 추수농심(秋收農心)이다. (해설) 근심 수(愁)자는 마음 심(心) 위에 가을 추(秋)자다. (운세) 농민의 수심(愁心)은 가을농사 추수이니 뿌린 자가 거둘 것이요 일 한자가 가질 것이다.
---	--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 1길 16 정원아트하우스 2층 201호 / 전화 010-7742-3111 **松岩 한영필** 합장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건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